

## 헤이안 신궁 신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4 개의 정원으로 구성된 헤이안 신궁 신엔은 정원마다 커다란 연못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 연못을 건너는 징검돌, 그리고 교토고쇼에서 이설된 아름다운 장식의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의 정원 모두 자신만의 관람 스타일로 돌아보면서 사계절마다 다채롭게 변화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0,000 m<sup>2</sup>에 이르는 넓은 정원은 약 40 분이면 전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 헤이안 신궁과 유래

헤이안 신궁은 옛 도읍이었던 교토의 유산을 기리며 헤이안쿄 최초의 천황과 최후의 천황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교토는 794 년부터 1868 년까지 1,0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의 수도였으며 헤이안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헤이안 신궁은 헤이안쿄의 심층부이자 천황이 정무를 관장했던 정전(正殿)인 조도인을 8 분의 5 크기로 복원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축소 복원한 규모이긴 하나, 헤이안 신궁의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모습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거대한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서면, 안뜰을 둘러싸는 듯한 배치로 조성된 건축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눈앞의 건축물들이 자아내는 선명한 색채들은 디자인과 어우러져 장엄함마저 느껴집니다.

헤이안 신궁은 헤이안 천도 1100 주년을 기념하여 1895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제 50 대 천황이자 헤이안쿄를 완성시킨 간무 천황(737-806)을 모시고 있습니다. 간무 천황은 헤이안쿄 보다 훨씬 앞서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현의 헤이조쿄에서 정무를 관장하였으나, 국가가 발전하고 궁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헤이조쿄가 점차 좁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넓고 위풍당당한 기세를 펼칠 수 있는 수도를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무 천황은 교토를 새로운 수도로 선정하고 793년에 수도를 짓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다음 해인 794년에 새로운 수도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을 헤이안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세에 헤이안 시대(794-1185)라고 불리며 예술과 문학이 발전했던 태평성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간무 천황의 치세는 25년간(781-806) 지속되었으며, 새로운 법의 발령과 학문 촉진, 아시아 각국과의 무역과 교역 지원 등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간무 천황은 교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다이고쿠텐 뒤편에 있는 혼텐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헤이안 신궁에서는 헤이안쿄에서 평생을 살았던 마지막 천황인 제 121 대 고메이 천황(1831-1866)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고메이 천황의 치세는 에도 시대 말엽의

21 년간(1847-1866) 이어졌으며, 산업화를 촉진하고 일본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통해 메이지 유신의 기반 조성에 커다란 공적을 세웠습니다. 메이지 유신과 함께 수도가 도쿄로 이전됨에 따라 헤이안쿄는 교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헤이안 신궁은 옛 도읍이었던 헤이안쿄와 72 대에 이르는 천황들의 치세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일본의 수도로서 소임을 다한 역사를 기리고 있습니다.